

“매출 1000억·수출 3000만弗 목표… 직원 잘 살게 해주고파”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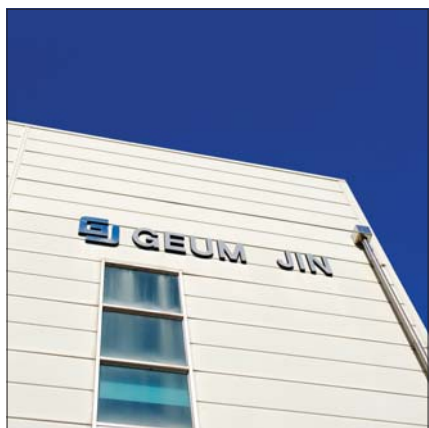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진현 금진 회장

김진현 금진 회장은 1973년 11월 당시 처음 받았던 급여명세표를 지금도 간직하며 가끔씩 들여다보고 상념에 잠긴다. 김 회장이 당시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서 받았던 월급은 4만 640원, 갑근세(2276원)와 주민세(113원)를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3만 8251원이었다. 격세지감이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직원들이 왜 회사를 다니겠느냐. 돈을 벌러 온다.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김 회장이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첫 급여명세표를 자주 쳐다보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2023년에는 이익의 20%를 임직원들을 위해 쓰



충북 청주에 있는 금진 본사 전경.

“LG건설재 공장장 퇴직, 52세 창업 이익 20% 직원들 위해 쓸 것 약속 직원 가족동반 해외연수 6번 진행

‘실크벽지’ PVC벽지 제조로 시작 국내 유일하게 상업용벽지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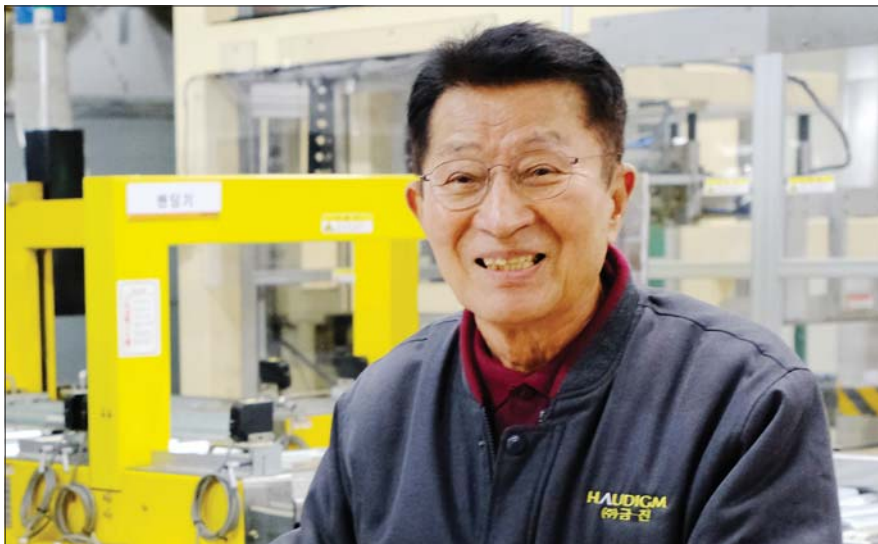
홍콩·중동 등 타깃 해외시장 공략 글로벌 종합 인테리어사 성장할 것

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은 임직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도 다 자신만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진 임직원과 가족 168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를 나눠 베트남 푸꾸옥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2007년부터 벌써 6번째 가족동반 해외연수다. 임직원 자신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의 경우 양가 부모까지 회사가 100% 비용을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70%를 대준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는 하와이를, 2022년에는 서유럽을 각각 다녀왔다.

“임직원 연수를 위해 회사는 매달 1000만원씩 적금을 든다. 이렇게 해서



김진현 금진 회장이 충북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번에 3억~4억원 가량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이는 아예 가용자금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여행비로만 쓴다. 가족 9명이 함께 갔다온 직원도 있다. (웃음)”

김 회장과 금진의 이야기는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LG건설재 제2공장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1998년에 금진 화학을 창업했다. 당시 그의 나이 52세였다. ‘금진’으로는 2009년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 나이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칠순까진 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청주공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설비들을 뜯어 갖고 나와 창업했다. 그 사이 회사는 13명에서 8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40억원

에서 350억원까지 성장했다. 2002년엔 공장에 불이 나기도 했다. 그것도 결국 전화위복이 됐다.”

‘실크벽지’로도 불리는 PVC벽지로 시작한 회사는 이후 상업용벽지,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호텔 등에 주로 쓰는 상업용벽지는 국내에선 금진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벽지가 소방 안전 등 국내 규격에 맞지 않아 금진의 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다.

금진 김국용 대표는 “회사는 국내 최초로 수용성 잉크를 사용해 친환경 벽지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KS제품 인증도 업계에서 처음으로 받았다. 이와 함

께 고내구성과 고감성 인테리어 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벽지 포장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 대표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진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오래부턴 해외시장 공략도 시작했다. 건축용 단열재인 폐페놀폼을 재활용한 재활용 데크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김 회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돌파구는 해외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외 수출은 홍콩, 마카오와 중동, 대만 등이 우선 타깃이다. 인도네시아와 쿠웨이트에는 일부 제품을 수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사업인 폐페놀폼 재활용 데크는 목재를 대체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단열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에도 큰 보탬이 된다. 자외선이나 온도·습도 등에 강하고 부식, 변형, 갈라짐 등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재활용 데크 역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그는 “회사는 2030년 매출 1000억원, 수출 3000만 달러를 통해 글로벌 종합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따르는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충북의 강소기업 금진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청주(충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체온따라 온도 조절… 숙면 돕는 ‘3세대 카본매트’

귀뚜라미, 난방매트 시장 세대교체 ‘카본열선’ 소재, 강도 강철의 5배

입면·숙면·기상 단계별 온도 변화 피로회복 돕는 ‘찜질모드’ 등 갖춰

귀뚜라미가 난방을 넘어 숙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기술적 해석을 더해 ‘3세대 카본매트’를 선보이며 난방매트 시장의 세대교체를 이끌고 있다.

27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3세대 카본매트는 체온리듬 기반의 자동 온도 제어 기술과 맞춤형 숙면 모드로 ‘숙면 가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귀뚜라미가 난방매트 시장에서 보일러 기술 60년, 온수매트 기술 10년을 집

약해 내놓은 결론은 ‘이제는 온수가 아닌 카본’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프리미엄 KMF 시리즈의 핵심은 수면 단계를 입면, 숙면, 기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고 체온 변화에 따라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온도 과학’이다. 입면 구간에서는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숙면 구간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깊은 잠을 유도한다. 또 기상 구간에서는 천천히 온도를 올려 부드러운 아침을 맞게 한다.

사용자는 각 단계의 시간과 온도를 1℃ 단위까지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 수면 리듬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숙면 패턴’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피로 회복을 돕는 ‘찜질모드(최대 55℃)’, 장시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취침모드(33℃·9시간)’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숙면 환경을 제공한다.

카본매트의 열원은 강철보다 5배 강한 아라미드 소재의 카본열선이다. 80만 회 굽힘 테스트를 통과한 높은 내구성 뿐만 아니라 EMF(전자기장환경) 인증을 통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했다. 물 순환 구조가 아니라 열선 기반이기 때문에 누수나 세균 번식, 물 빠기·보충 등 온수매트의 고질적 불편도 사라진다. 펌프 소음이 없어 ‘조용한 따뜻함’을 제공한다는 점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160W의 저전력 설계로 온수매트(약 300W 대비)의 절반 수준의 전력만 사용한다.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월 전기료는 약 7000원으로, 에코모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약 20%의 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본매트의 원단에는 쾌적함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소재 기술을 적용했다.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텐셀 원단, 은이온(Ag+)을 함유한 에어로실버, 탈취 효과가 뛰어난 큐어셀 원단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재는 쾌적한 촉감과 위생성을 동시에 갖췄다. 켈팅 구조로 침구류 역할을 병행하며, 세탁기 워셔블 테스트 및 아동용 섬유 안전 기준도 충족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히에서 열린 ‘2025년 공공구매 촉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주관하는 정부 포상이다.

소진공은 공공구매 정책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공공구매 전 제품군(중소·기술개발·여성·장애인·창업)의 법정 의무구매율을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소진공은 전사적 공공구매 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우선구매 실적 모니터링 기능을 마련하고 우선구매 달성도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내부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국가 재난시 물류 책임진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선정

CJ대한통운 등이 물류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2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회사는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선정됐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관리지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설된 제도다. 재난의 유형이 진화하고 강도 또한 강해짐에 따라 민간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단위 물품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등 재난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신규 지정 공모를 내고 접수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1·2차 평가를 거쳐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비지이프로지스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마사지샷·코어샷’ 출시

의료기기 신제품… 모델에 차승원

코웨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기 ‘비렉스(BEREX) 마사지샷·코어샷’을 출시하고 광고 모델로 배우 차승원을 선정했다.

27일 코웨이에 따르면 배우 차승원이 지닌 품격 있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꾸준한 자기관리의 상징성이 비렉스 신제품 ‘마사지샷·코어샷’의 콘셉트와 부합해 이번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차승원을 모델로 한 이번 광고는 코웨이 슬립 앤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의료기기 신제품이 지닌 기술력과 신뢰감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코웨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렉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코웨이 비렉스 마사지샷·코어샷 신규 광고는 TV, SNS,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